

야구

6

2018년 7월 26일 목요일

스포츠동아

전문 지명타자가 팀에 미치는 영향은?

팀 타선 활력 vs 야수 체력 부담... '양날의 검'

추신수 '안타 오랜만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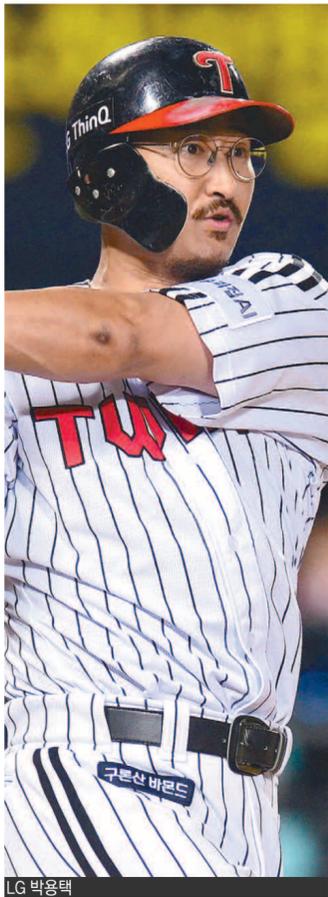
1안타·1볼넷·2득점...4G만에 안타
최저안은 2타수·1볼넷으로 골몰라

메이저리그 무대에서 활약하는 한국인 타자들에게 '볼넷'은 여러모로 훌륭한 유효타가 되어준다. 방망이는 쉬어가더라도 눈과 발을 이용해 팀에 기여하는 또 다른 방법이다.

텍사스 레인저스의 추신수(36)는 25일(한국시간) 미국 텍사스주 알링턴의 글로브 라이프 파크에서 열린 오글랜드 애슬레틱스와 홈경기에 1번 지명타자로 선발 출장해 4타수 1안타 1볼넷 2득점을 기록했다. 1회 선두타자로 나서 볼넷을 골라내며 출발했다. 차분히 경기를 풀어나간 덕에 5회엔 4경기만의 안타도 뽑았다. 좌전안타로 출루해 후속타로 홈까지 밟았다. 6회 유격수 실책으로 출루해서는 엘비스 앤드루스가 쏘아올린 만루홈런으로 추가 득점까지 했다. 그럼에도 팀은 10-13, 아쉽게 역전패를 당했다.

연일 팽타를 휘두른 팜파베이 레이스의 최저안타(27)는 잠시 숨을 골랐다. 뉴욕 양키스를 상대로 5번 타순을 맡아 2타수 1볼넷을 기록했다. 최저안은 0-2로 뒤진 5회 볼넷을 골라내 추격의 발판을 만들었지만, 이날 팀은 총 3안타에 그치는 등 타선에서 좀처럼 힘을 쓰지 못했다. 결국 팜파베이는 0-4로 고개를 숙였다.

서대경 기자 seedy3062@donga.com



LG 박용택

박용택·나지완 대표적 전문 지명타자 클러치 능력 장점...안 터질땐 온도차 SK·두산 등 로테이션으로 체력 안배

KBO리그는 원년인 1982년부터 지명타자 제도를 도입해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다. 수비를 하지 않는 포지션인 지명타자는 보통 공격에 특화된 선수들에게 주어지는 임무다. 과거 대표되는 선수로는 김봉연, 마해영, 이호준 등 클러치 능력이 뛰어난 선수들이 있다.

한 방을 쳐줄 수 있는 선수들이 지명타자로 팀 타선에 불어 넣는 활력은 엄청난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하면 수비에서 아쉬움을 동반하는 것 또한 사실이다. 전문 지명타자들은 대부분 수비에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그런 탓에 특정 선수가 지명타자 자리를 시즌 내내 꿰찬다는 것은 다른 선수들의 수비와 체력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한다. 전문 지명타자란 팀 운영에 있어 항상 '양날의 검'과도 같은 것이다.

현대야구의 발전과 함께 지명타자 제도는 서서히 그 운영 방식이 변했다. 최근 들어선 지명 야수들의 체력 관리를 위해 활용하는 포지션으로도 꽤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폭염으로 선수들의 체력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혹서기에는 여럿이 돌아가며 지명타자로 나서곤 한다.

올 시즌에도 전문 지명타자를 활용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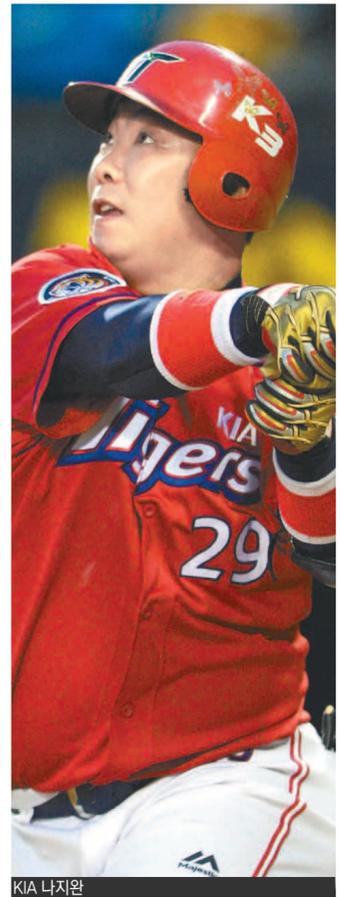
팀은 그리 많지 않다. 주로 지명타자로 출전하는 자원들이 있지만, 이들 외에 다른 선수들에게도 적지 않게 지명타자로 나설 기회가 주어진다.

올해 전문 지명타자를 쓰는 팀은 LG 트윈스와 KIA 타이거즈로 대표된다. LG는 24일까지 지명타자가 소화한 435타석 중 424타석에 박용택(39)을 기용했다. 선발출장한 대부분의 경기에 지명타자로 나간 셈이다. KIA는 386타석 중 213타석을 나지완(33)이 소화했다. 공격에 특화된 자리라 보니 둘의 타격감에 따라 만들어지는 팀 성적의 온도차는 꽤 크다. 박용택은 시즌 초 팽타를 휘두르며 팀의 상승세에 기여했으나, 7월 들어선 2할 초반대의 타율을 기록하고 있다. 나지완 역시 커리어 하이를 찍었던 지난해와 달리 올 시즌에는 좀처럼 제 컨디션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6월에는 0.192의 월간 타율을 기록하기도 했다.

지명타자 포지션을 고르게 분배해 활용하는 팀은 SK 와이번스가 대표적이다. 한동민~김동엽~정의운 등 거포들이 돌아가며 지명타자로 뛰었다. 삼성 라이온즈 역시 박한이를 필두로 구자욱~다린 러프가 돌아가며 지명타자로 뛰었다.

두산 베어스는 최주환(426타석 중 247타석)이 지명타자로 가장 많이 들어섰는데, 김재환~양의지도 체력관리가 필요한 시점에서 그 자리에 섰다. 최주환은 2루수와 3루수 등 내야수로 출전한 횟수도 적지 않아 멀티플레이어로서 가치를 높이고 있다.

장은상 기자 award@donga.com



KIA 나지완

94경기 126방...KT '최다 피홈런' 불명예 위기

144경기 환산할 경우 193피홈런
2000년 SK 195피홈런 넘을수도

KT 위즈는 올해 리그 최고의 홈런 공장이다. 상대 투수를 떨게 하고 있는 팀은 156홈런을 때려낸 SK 와이번스인데, KT는 가장 많은 홈런을 허용하며 SK와 다른 의미의 '공장'이 되어가고 있다.

KT는 24일까지 94경기를 치르며 126홈런을 허용했다. 리그 최다 피홈런이다. 2위 KIA 타이거즈보다 8개가 더 많다. 144경기 체제로 환산하면 193피홈런으로 시즌을 마친다는 계산이 나온다.

지난해까지 단일시즌 기준으로 KBO리그 한 시즌 가장 많은 홈런을 허용한 팀은 2000년 SK였다. 195개의 홈런을 맞으며 마운드의 약점을 여과 없이 드러냈고, 때

때리고 최하위(4위)로 시즌을 마쳤다. 2016년 삼성 라이온즈(193피홈런), 2000년 한화 이글스(189피홈런)가 그 뒤를 따른다. 지금의 분위기라면 KT가 18년 묵은 SK의 불명예 기록을 깨뜨릴 가능성도 있다.

KT의 홈구장인 수원 KT위즈파크는 인천SK행복드림구장, 대구삼삼라이온즈파크 등과 더불어 홈런 공장으로 손꼽힌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KT의 많은 피홈런을 설명하기는 어렵다. KT가 올 시즌 허용한 홈런 126개 중 홈에서 62개, 원정에서 64개를 허용한 지표는 '홈구장에서 홈런이 자주 나온

다'는 말의 설득력이 떨어지는 이유다.

중심을 잡아줘야 할 더스틴 니퍼트, 라이언 피어밴드 외국인 윌트핀치가 나란히 16피홈런으로 고전하고 있다는 점이 뼈아프다. 홈런 하나로 만들어지는 점수는 최대 4점으로 공격 팀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수확이다. 반대로 수비 팀에게는 악몽과도 같다. KT가 목표로 하는 탈삼진 이상의 성적을 내기 위해서는 피홈런부터 줄이는 것이 급선무다.

최익래 기자 ing17@donga.com

편집 | 김태권 기자 bong82@donga.com

스포츠도도와 함께하는 스포츠기록실

경기 결과	
프로야구 기록실 (24일)	
•팀순위	
순위	팀 경기 승 패 무 승률 게임차 연속 타율 경기차 홈승률 득점 실점 홈런 도루 실책
1	두산 94 63 31 0 0.670 - 1패 0.308 4.79 0.721 602 470 122 58 45
2	S K 93 53 39 1 0.576 9.0 1승 0.281 4.36 0.636 513 431 156 69 65
3	한화 96 55 41 0 0.573 9.0 1승 0.274 4.45 0.630 468 463 91 86 59
4	L G 97 51 45 1 0.531 13.0 4패 0.297 4.90 0.612 544 510 99 53 60
5	넥센 99 48 51 0 0.485 17.5 1패 0.280 4.97 0.451 536 522 111 66 68
6	K I A 92 43 49 0 0.467 19.0 2패 0.293 5.08 0.551 513 498 106 57 57
7	삼성 97 44 51 2 0.463 19.5 3승 0.285 5.17 0.455 500 540 86 69 55
8	롯데 93 39 52 2 0.429 22.5 1패 0.286 5.31 0.449 516 546 123 37 78
9	K T 94 39 53 2 0.424 23.0 2승 0.277 5.24 0.444 475 528 128 56 61
10	N C 97 37 60 0 0.381 27.5 1승 0.252 5.39 0.404 391 550 80 56 66
•Before & After 7-Game	
팀	17화 18수 19수 20일 21토 22일 24화 25수 26목 27금 28토 29일 31화 1수
K I A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⑯ ⑰ ⑱ ⑲ ⑳ ㉑ ㉒ ㉓ ㉔ ㉕ ㉖ ㉗ ㉘ ㉙ ㉚ ㉛ ㉜ ㉝ ㉞ ㉟ ㊱ ㊲ ㊳ ㊴ ㊵ ㊶ ㊷ ㊸ ㊹ ㊺ ㊻ ㊼ ㊽ ㊾ ㊿
두산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⑯ ⑰ ⑱ ⑲ ⑳ ㉑ ㉒ ㉓ ㉔ ㉕ ㉖ ㉗ ㉘ ㉙ ㉚ ㉛ ㉜ ㉝ ㉞ ㉟ ㊱ ㊲ ㊳ ㊴ ㊵ ㊶ ㊷ ㊸ ㊹ ㊺ ㊻ ㊼ ㊽ ㊾ ㊿
롯데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⑯ ⑰ ⑱ ⑲ ⑳ ㉑ ㉒ ㉓ ㉔ ㉕ ㉖ ㉗ ㉘ ㉙ ㉚ ㉛ ㉜ ㉝ ㉞ ㉟ ㊱ ㊲ ㊳ ㊴ ㊵ ㊶ ㊷ ㊸ ㊹ ㊺ ㊻ ㊼ ㊽ ㊾ ㊿
S K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⑯ ⑰ ⑱ ⑲ ⑳ ㉑ ㉒ ㉓ ㉔ ㉕ ㉖ ㉗ ㉘ ㉙ ㉚ ㉛ ㉜ ㉝ ㉞ ㉟ ㊱ ㊲ ㊳ ㊴ ㊵ ㊶ ㊷ ㊸ ㊹ ㊺ ㊻ ㊼ ㊽ ㊾ ㊿
N C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⑯ ⑰ ⑱ ⑲ ⑳ ㉑ ㉒ ㉓ ㉔ ㉕ ㉖ ㉗ ㉘ ㉙ ㉚ ㉛ ㉜ ㉝ ㉞ ㉟ ㊱ ㊲ ㊳ ㊴ ㊵ ㊶ ㊷ ㊸ ㊹ ㊺ ㊻ ㊼ ㊽ ㊾ ㊿
L G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⑯ ⑰ ⑱ ⑲ ⑳ ㉑ ㉒ ㉓ ㉔ ㉕ ㉖ ㉗ ㉘ ㉙ ㉚ ㉛ ㉜ ㉝ ㉞ ㉟ ㊱ ㊲ ㊳ ㊴ ㊵ ㊶ ㊷ ㊸ ㊹ ㊺ ㊻ ㊼ ㊽ ㊾ ㊿
넥센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⑯ ⑰ ⑱ ⑲ ⑳ ㉑ ㉒ ㉓ ㉔ ㉕ ㉖ ㉗ ㉘ ㉙ ㉚ ㉛ ㉜ ㉝ ㉞ ㉟ ㊱ ㊲ ㊳ ㊴ ㊵ ㊶ ㊷ ㊸ ㊹ ㊺ ㊻ ㊼ ㊽ ㊾ ㊿
한화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⑯ ⑰ ⑱ ⑲ ⑳ ㉑ ㉒ ㉓ ㉔ ㉕ ㉖ ㉗ ㉘ ㉙ ㉚ ㉛ ㉜ ㉝ ㉞ ㉟ ㊱ ㊲ ㊳ ㊴ ㊵ ㊶ ㊷ ㊸ ㊹ ㊺ ㊻ ㊼ ㊽ ㊾ ㊿
삼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⑯ ⑰ ⑱ ⑲ ⑳ ㉑ ㉒ ㉓ ㉔ ㉕ ㉖ ㉗ ㉘ ㉙ ㉚ ㉛ ㉜ ㉝ ㉞ ㉟ ㊱ ㊲ ㊳ ㊴ ㊵ ㊶ ㊷ ㊸ ㊹ ㊺ ㊻ ㊼ ㊽ ㊾ ㊿
K T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⑯ ⑰ ⑱ ⑲ ⑳ ㉑ ㉒ ㉓ ㉔ ㉕ ㉖ ㉗ ㉘ ㉙ ㉚ ㉛ ㉜ ㉝ ㉞ ㉟ ㊱ ㊲ ㊳ ㊴ ㊵ ㊶ ㊷ ㊸ ㊹ ㊺ ㊻ ㊼ ㊽ ㊾ ㊿
○=승 ●=패 □=무 * =홈경기	

※ '프로야구 기록실'이 신문제작 시간관계로 일부 게재되지 못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메이저리그 (25일)	
•아메리칸리그	
순위	동부지구 승 패 순위 중부지구 승 패 순위 서부지구 승 패
1	보스턴 71 32 1 클리블랜드 54 46 1 휴스턴 67 36
2	뉴욕Y 64 35 2 미네소타 46 53 2 시애틀 60 41
3	탬파베이 51 50 3 디트로이트 43 60 3 오글랜드 59 43
4	토론토 46 54 4 시카고W 36 64 4 LAA 50 52
5	볼티모어 29 73 5 캔자스시티 31 69 5 텍사스 42 60

내셔널리그		
순위	동부지구 승 패 순위 중부지구 승 패 순위 서부지구 승 패	
1	필라델피아 56 44 1 시카고C 58 42 1 LAD 56 45	
2	애들렌타 54 44 2 밀워키 58 45 2 애리조나 56 46	
3	워싱턴 49 51 3 피츠버그 53 49 3 콜로라도 53 47	
4	마이애미 44 59 4 St. 루이스 51 50 4 샌프란시스코 52 50	
5	뉴욕M 41 57 5 신시내티 44 57 5 샌디에이고 42 62	
•타격		
타율	출런	타점
① 베츠(보스턴) 0.351 ① 마르티네즈(보스턴) 31 ① 마르티네즈(보스턴) 85		
② 알투브(휴스턴) 0.328 ② 리메즈(클리블랜드) 30 ② 리메즈(클리블랜드) 73		
③ 마르티네즈(보스턴) 0.323 ③ 트라웃(LAA) 26 ③ 데이비스(오글랜드) 72		
④ 세구라(시애틀) 0.320 ④ 저지(뉴욕Y) 26 ④ 엔카나시온(클리블랜드) 69		
⑤ 마차도(볼티모어) 0.315 ⑤ 갈로(텍사스) 25 ⑤ 브레그먼(휴스턴) 68		
내셔널 리그		
타율	출런	타점
① 마카키스(애들렌타) 0.319 ① 카펜터(St.루이스) 25 ① 베츠(보스턴) 74		
② 디카스(피츠버그) 0.318 ② 아레나도(콜로라도) 25 ② 수아레스(신시내티) 74		
③ 프리먼(애들렌타) 0.318 ③ 아라라(밀워키) 25 ③ 아레나도(콜로라도) 72		
④ 캄프(LAD) 0.317 ④ 허퍼(워싱턴) 24 ④ 아라라(밀워키) 71		
⑤ 알모라(시카고C) 0.316 ⑤ 벤치(LAD) 23 ⑤ 스토리(콜로라도) 68		
•투수		
다 승	평균자책점	탈삼진
① 세베리노(뉴욕Y) 14 ① 세일(보스턴) 2.13 ① 세일(보스턴) 197		
② 스텔(탬파베이) 12 ② 발렌타(휴스턴) 2.19 ② 골(휴스턴) 186		
③ 카라스코(클리블랜드) 12 ③ 스넬(탬파베이) 2.27 ③ 발렌타(휴스턴) 183		
④ 클루버(클리블랜드) 12 ④ 바우어(클리블랜드) 2.44 ④ 바우어(클리블랜드) 182		
⑤ 포셀로(보스턴) 12 ⑤ 콜(휴스턴) 2.54 ⑤ 맥스톤(시애틀) 155		
내셔널 리그		
다 승	평균자책점	탈삼진
① 서저(워싱턴) 13 ① 디그롬(뉴욕M) 1.71 ① 서저(워싱턴) 189		
② 레스터(시카고C) 12 ② 놀라(필라델피아) 2.42 ② 디그롬(뉴욕M) 159		
③ 놀라(필라델피아) 12 ③ 서저(워싱턴) 2.43 ③ 놀라(필라델피아) 158		
④ 그레이디(애리조나) 11 ④ 미클라시(St.루이스) 2.82 ④ 그레이디(애리조나) 137		
⑤ 고들리(애리조나) 11 ⑤ 볼티모어(애들렌타) 2.85 ⑤ 놀라(필라델피아) 136		

경기결과			
마이애미 9-3	애들렌타	애리조나 5-1	시카고C
시카고W 4-2	LAA	캔자스시티 5-4	디트로이트
필라델피아 7-4	LAD	미네소타 5-0	토론토
뉴욕Y 4-0	탬파베이	오글랜드 13-10	텍사스
뉴욕M 6-3	샌디에이고	샌프란시스코 4-3	시애틀
볼티모어 7-6	보스턴	밀워키 5-4	워싱턴
휴스턴 8-2	콜로라도	피츠버그 9-4	클리블랜드
St. 루이스 4-2	신시내티		

아마추어 경기결과 (25일)	
배구	● 제 52회 대통령배 전국 남녀 중고배구대회(인제) •남자 고등부 준결승전=경북사대부고 3-1 옥천고, 남상고 3-0 재천고 •여자 고등부 결승전=원곡고 3-0 서울중앙여고 •남자 중등부 준결승전=연원중 2-0 재천중, 남성중 2-0 생명중 •여자 중등부 준결승전=중앙여중 2-0 세화여중, 해림중 2-0 재천여중
배드민턴	● 2018 회장기 전국 대학 배드민턴연맹전(강원도 철원군) •남자 대학부 단체전 8강=동의대 3-0 동양대, 동양대A 3-0 백석문화대 B, 백석대 3-0 세한대 •여자 대학부 단체전 8강=부산외대 3-0 중앙대, 중앙대A 기권승 인천대, 조선이공대 3-0 동양대B, 조선대 3-2 공주대
럭비	● 제 29회 대통령기 전국 종합 럭비 선수권대회(전남 강진) •고등부 8강=충북고 34-33 명성고, 양정고 22-10 경신고, 부산체고 26-24 사대부고
사이클	● 제 47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전국학생사이클 대회(전주사이클경기장, 금산군) •10km 스크래치 남자 고등부 결승전=① 김건우(영주체고), ② 이호성(목천고), ③ 임준형(충북체고) •7.5km 스크래치 여자 고등부 결승전=① 김채린(경북체고), ② 박은재(경원여고), ③ 오은수(영주고) •3km 스크래치 남자 중등부 결승전=① 이건민(목천중), ② 박주환(변동중), ③ 김재환(금성중) •3km 스크래치 여자 중등부 결승전=① 윤선아(빛가람중), ② 천윤영(영주체중), ③ 홍예진(양양여중) •단체스프린트 남자 고등부 순위결정전=① 동대천고(대전), ② 양양고(강원), ③ 창원기계고(경남) •단체스프린트 여자 고등부 순위결정전=① 인천체고(인천), ② 대전체고(대전), ③ 전북체고(전북) •단체스프린트 남자 중등부 순위결정전=① 계산중(인천), ② 사하중(부산), ③ 의정부중(경기) •단체스프린트 여자 중등부 순위결정전=① 빛가람중(전남), ② 광주체중(광주), ③ 제주동중(제주)

아마추어 경기예고 (26일)	
배구	● 제 44회 대통령기 전국 시도 대학 레슬링대회(강원도 양구, 오전10시) ● 제 48회 대통령배 전국 시도복싱대회(구미 박정희체육관, 오후3시) ● 제 55회 대통령기 전국장사씨름대회(예산 문봉길체육관, 오전9시30분) ● 제 36회 전국 실업단 사격대회(나주, 오전9시) ● 제 45회 한국중고연맹회경기 대회(예천, 오전8시50분) ● 제 47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전국학생사이클 대회(전주사이클경기장, 금산군, 오전8시30분)
탁구	● 제 16회 아시아 남자 주니어 선수권대회(오만 살릴라)
하키	● 제 14회 여자 월드컵(영국 런던)
스키	● 2018 세계 남아 주니어 선수권대회(인도)
정구	● 제 56회 대통령기 전국정구대회(충북 영동군민정구장)
럭비	● 제 29회 대통령기 전국 종합 럭비 선수권대회(전남 강진, 오전10시)
레슬링	● 제 44회 대통령기 전국 시도 대학 레슬링대회(강원도 양구, 오전10시)
복싱	● 제 48회 대통령배 전국 시도복싱대회(구미 박정희체육관, 오후3시)
씨름	● 제 55회 대통령기 전국장사씨름대회(예산 문봉길체육관, 오전9시30분)
사격	● 제 36회 전국 실업단 사격대회(나주, 오전9시)
양궁	● 제 45회 한국중고연맹회경기 대회(예천, 오전8시50분)
사이클	● 제 47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전국학생사이클 대회(전주사이클경기장, 금산군, 오전8시30분)